

저자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것이 바로 당초의 「인풋」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증대시키며, 그를 통하여 「아웃풋」은 極大化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媒介體는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構造的媒介體와 機能的媒介體이다. 여기서 구조적매개체란 組織目標의 종합, 기대되는 役割의 확정 및 행동의 구체등이며, 組織企劃 및 職務分析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기능적 매개체란 주로 生産性增大를 추구하는 것이며, 그는 管理者開發, 訓練, 賃金管理, 安全管理등을 위한 방책이며, 또한 業績統制가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모델」을 전제로 한 本書는 人事管理의 諸制度를 이 「모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분석하고 있다.

- 第1編 人事管理의 專門化——인사관리자의 역할과 인사관리의 歷史的發展
- 第2編 人事管理上の 制約要因——內的制約으로서의 個人的 차이, 外的制約으로서의 文化的, 地域的, 産業的特性, 勞使關係上の 法律的規制, 雇用管理上の 法律的規制
- 第3編 役割叙述書와 役割行動: 個人的 產出評價——組織企劃, 職務分析, 管理者評價, 人事考課
- 第4編 選考와 選技: 個人的 投入評價——選技節次, 面接과 關聯技術, 身體檢査, 心理檢査
- 第5編 投入產出媒介體: 生産性 및 利潤의 增大等——管理者開發, 賃金管理, 安全管理, 業績統制
- 第6編 投入產出媒介體: 組織維持의 促進等——勞使關係의 接近法, 福利厚生, 意思疎通
- 第7編 理論의 綜合: 組織理論과 人事管理

### <財務管理>

## The Scope and Methodology of Finance

by 「J. Fred Weston」

Prentice-Hall, Inc., 1966

金 熙 執

企業의 財務管理분야에 관한 研究實績은 최근 10年동안 눈부신 成果를 얻고있다. 특히 美國에 있어서의 새로운 財務管理論의 展開는 Ezra Solomon 교수를 중

심으로 하여 크게 發展하고 있으며, 특히 그가 編輯한바 있는 「財務管理 基礎시리즈」(*Foundations of Finance Series*)는 全8卷으로서 그 代表的인 成果를 集大成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企業의 財務의 측면에 관한 研究는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研究의 中心的 課題는 항상 時代的 추이에 따라 變遷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經營學이 學問的 體系를 이루어 오던 初期에 있어서의 財務論은 주로 企業의 資本調達에 그 重點이 주어 졌었으나, 經營活動이 복잡화함에 따라 그 中心的 초점은 점차로 資本의 運用論에 옮겨지더니 최근에 이르러서는 長期的 設備投資의 決定問題가 經營財務論의 重要課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企業의 經營活動에 있어서는 그에 필요한 資本의 調達문제와 그 資本의 運用문제는 서로 不可分의 關係에 있으며 兩者는 서로 合理的인 調和를 이루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企業의 財務問題에 관한 學問的 研究에 있어서도 이 兩側面은 統一的이며 綜合的 立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理致가 될 것이다. 더우기 企業의 持續的 成長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設備投資에 의한 收益性의 確保는 물론 財務流動性의 유지문제는 더욱 강화되는 기능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經營財務論은 長期的 配慮뿐만 아니라 短期的 配慮도 결코 同時할 수 없는 立場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經營財務에 관한 研究領域의 점진적인 擴大는 從來에 攄해오던 研究方法에 있어서도 상당한 進展이 엿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種래의 傳統的인 經營財務論에 대한 새로운 財務管理論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새로운 財務管理論을 위한 여러 研究들은 아직은 그 內容들이 모두 충분히 整備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또 반드시 體系化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더우기 研究方法의 選擇差異에서 오는 研究結果의 差異는 현저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모델」形成의 前提가 되는 基本假定, 測定節次 및 資料選擇의 相異등은 研究結果에 대하여 많은 混線마저 가져오고 있는 實情인 것이다.

이와같은 財務管理에 대한 새로운 研究結果에 대하여 그는 現在の 座標를 정리 확인하고, 그 研究領域과 方法論의 整理를 새로운 立場에서 提示하는 있는 데 이 것이 本書가 가진 意義와 특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즉 著者는 그의 序文에서 「本書의 意圖는 方法論이 研究의 結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關하여 注意를 환기시킴과 아울러 經營財務研究에 있어서의 方法論을 더욱 發展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또한 本書는 經營財務의 領域에 關해서도 論及하는 바, 經營財務의 研究는 經營理論에 있어서 重要的 意義를 가질뿐만 아니라 經濟體制 全體의 過程 및 그 成長에 關한 諸理論에 대해서도 重要的 役割을 가지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論文은 財務職能의 定義와 基本的인 諸問題의 풀이에서 출발하여 그 發展過程, 經營組織과의 關係, 財務方針과의 關係등 基本的인 理論을 定立하고 나아가서는 財務職能의 새로운 動向을 提示하는 한편, 投資決定과 資本「코스